

안녕하세요 아마존 빠울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브라질 선교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 년 설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모든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기도 합니다.

지난 몇달동안 소식을 기다리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이곳 브라질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 1. 산타카타리나 소식

먼저 저는 브라질의 남부인 산타카타리나에 온지 어느덧 9 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매일 여러곳을 다니며 어느곳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브라질 북부 아마존의 마나우스 시에는 골목마다 교회들이 넘쳐나 있는 반면 이곳은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북부 보단 남부 사람들이 좀더 낯은 환경에 살고 있어서 인지 하나님의 찾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곳을 다니며 지역과 위치가 좋은곳에서 사역을 하기위해 찾아본 결과 폴킬냐스 라는 곳에 맘에 드는 부지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 땅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얼마전 작은 땅을 살수 있는 헌금이 거의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곳이 기도하며 기다린 땅입니다. 오늘 복덕방을 찾아가 이부지가 다른 이들에게 팔리지 않게 미리

계약금을 내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모이게 되면 나머지를 내고 이곳을 완전히 구입하게 됩니다. 작은 땅이지만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계획은 이층으로 건축을 할 예정이며, 일층은 체육관겸 예배를 드릴수 있게 하고 이층에 저희가 지낼수 있는 사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야할일이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걸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꼭 이뤄 주신다는것도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로 하나하나 해결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 2. 아마존 소식

이번에 1 월말에 저의 아버지이신 유지화 목사님과 어머니께서 아마존을 방문 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아마존 방문이 되실것 같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치매로 집을 떠나 다니시기엔 힘들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 오셔서도 계속 치매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계획은 아마존에서 일주일 그리고 산타카타리나 사역을 방문하시려 했는데 아마존을 떠나 산타카타리나로 오시는 도중 잠시 쌍파울로에 들리셨는데 쌍파울로에서 증상이 많이 안 좋아 지셨습니다. 원래 지내시던 미국 아틀란타를 떠나시면서 불안증세가 심해지셨고 매일 매시간 집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고 미국과 브라질이 어디인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오분에서 십분마다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시고 주무시지 못하셨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상황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산타카타리나 방문을 포기하고 두분을 미국으로 돌아가시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로써 여행을 두분만 보내는게 마음에 무척 걸렸지만 제가 같이 가기엔 경제적으로 상황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보아비스타에서 차로 12 시간을 달려온 아순썩 할아버지도 오셔서 무척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순썩 할아버지는 저희가 보아비스타에서 사역을 할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며 전도한 분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례식도 담임목사가 아닌 아버지에게 받게되며 아버지가 보아비스타에 가기까지 몇년을 기다려 세례도 받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아마존 방문을 더이상 하실수 없는게 무척이나 마음이 아픡니다. 하지만 옛분들은 다 기억하셔서 방문한 모든분들을 알아보셔서 기쁨의 만남이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잘 도착하셔서 안정을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1. 산타카타리나 선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모자른 부분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2.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산타카타리나 선교지의 건축헌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3.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 합니다.
4. 아마존 선교센터에 새로 오시게 될 조반석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 합니다.
5. 아마존 원주민 사역자들과 새로 오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뒤에서 기도과 물질로 도와 주시는 미주 아틀란타 섬기는교회와 앞으로 서로 섬기며 위하고 사랑하며 부족하면

채워주고 돕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 브라질 원주민들의 눈높이 맞춰 돕고 인내하며 원주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6. 마지막으로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은 이곳 산타카타리나에서 사역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현재 이곳에서 우연히 알게된 젊은 레즈비언 그룹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진은 보여드리는게 아직은 아닌거 같아 올리지는 못하지만 짧은 만남을 통해 벌써 저와 같이 교회에 가고 싶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건 없는데 저를 통해 교회의 길로 인도 하신것 같아 기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악싸(ACSA) 입니다. 나이는 현재 21 살이고요, 이친구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이런적이 없다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의 계획보단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년 2 월 6 일 브라질에서 싸울로 선교사